

경제전망보고서

2020. 11

여 백

차 례

< 요 약 >

I. 대내외 여건 점검 1

1. 세계경제 1

2. 국내경제 11

<주요 전망 전제치> 14

II. 거시경제 전망 15

1. 경제성장 15

2. 고용 29

3. 물가 33

4. 경상수지 37

III. 주요 현안점검 38

1. 최근 제조업 경기 현황 및 평가 38

요 약

- ①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,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-1.1%,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.0%, 2.5% 수준을 나타낼 전망
-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,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 - 민간소비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,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
 - 설비투자는 IT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지연된 비IT부문 투자도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 -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의 부진도 완화될 전망
 -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함께 상품교역도 회복되면서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 - 향후 성장경로는 코로나19 전개양상과 백신·치료제 상용화 시기, 반도체 경기 향방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- ② 취업자수는 2020년중 20만명 감소한 후, 2021년, 2022년중 각각 13만명, 21만명 증가할 전망
-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되겠지만, 내년에는 대면서비스 수요회복, 제조업 업황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

③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.5%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.0%, 1.5%로 점차 높아질 전망

○ 이는 국내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인

④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, 2021년 및 2022년중 각각 650억 달러, 600억달러 및 580억달러로 전망

경제 전망

		(%)						
	2019	2020			2021 ^{e)}			2022 ^{e)}
		상반	하반 ^{e)}	연간 ^{e)}	상반	하반	연간	연간
▪ GDP ¹⁾	2.0	-0.7	-1.4	-1.1	2.6	3.3	3.0	2.5
민간소비	1.7	-4.4	-4.1	-4.3	2.9	3.2	3.1	2.5
설비투자	-7.5	5.6	5.7	5.7	4.9	3.6	4.3	3.2
지식재산생산물투자	3.0	3.3	4.2	3.8	3.8	4.0	3.9	3.7
건설투자	-2.5	1.7	-2.9	-0.7	-1.8	2.6	0.5	2.1
상품수출	0.5	-2.9	-0.4	-1.6	9.3	1.9	5.3	2.3
상품수입	-0.8	-0.9	-0.3	-0.6	7.5	4.5	5.9	3.2
▪ 취업자수 증감(만명) ¹⁾	30	-6	-35	-20	5	21	13	21
▪ 실업률	3.8	4.3	3.7	4.0	4.2	3.4	3.8	3.7
▪ 고용률	60.9	60.0	60.3	60.1	59.8	60.6	60.2	60.5
▪ 소비자물가 ¹⁾	0.4	0.6	0.5	0.5	0.7	1.2	1.0	1.5
식료품·에너지 제외	0.7	0.4	0.3	0.3	0.7	1.3	1.0	1.3
농산물·석유류 제외	0.9	0.6	0.7	0.7	0.8	1.2	1.0	1.3
▪ 경상수지(억달러)	600	192	458	650	260	340	600	58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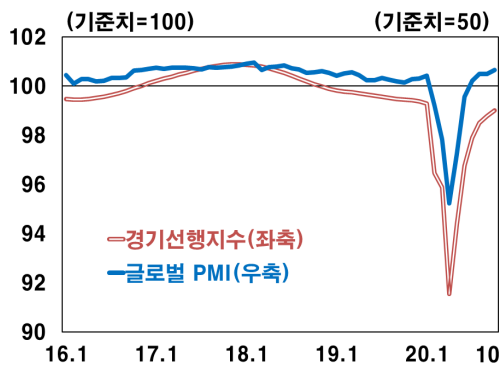
주: 1) 전년동기대비

I. 대내외 여건 점검

1. 세계경제

- 세계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이후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
- 선진국의 소비회복과 중국의 투자확대로 개선되다가,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선세가 다소 약화
- 앞으로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,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-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

경기선행지수¹⁾ 및 글로벌 PMI



주: 1) OECD회원국과 6개 신흥국
(중국, 브라질, 인도, 러시아,
인도네시아, 남아공) 기준

자료: OECD, JP Morgan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		(%)		
	전망시점	2019	2020 ^{e)}	2021 ^{e)}
IMF	20.10월	2.8	-4.4	5.2
(선진국)		1.7	-5.8	3.9
(신흥국)		3.7	-3.3	6.0
OECD	20. 9월	2.6	-4.5	5.0
Global Insight	20.11월	2.9	-4.3	4.6
5개 IB 평균	20.11월	3.0	-3.7	5.6

자료: 각 기관

□ 세계교역도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

- 서비스교역은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
상품교역은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*

* 세계상품교역량(수입량 기준, 전년동월대비, %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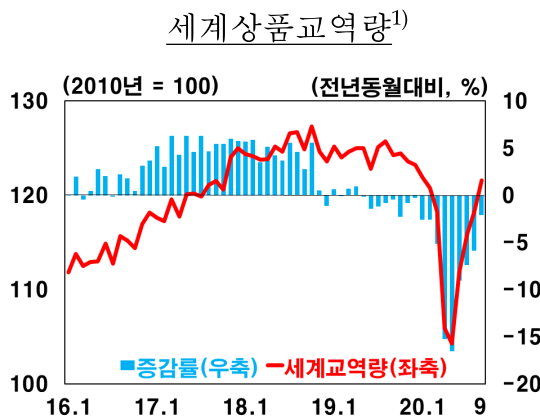
20.4월 -15.3 → 5월 -16.5 → 6월 -9.0 → 7월 -7.4 → 8월 -5.9 → 9월 → -2.1

-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상품교역*을 중심으로 개선
될 것으로 예상

* 10월 제조업 수출주문 PMI가 전월에 이어 기준치를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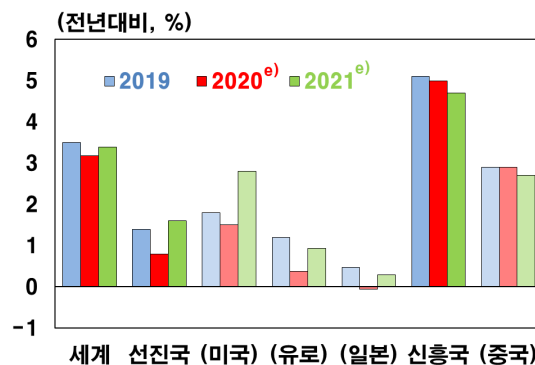
(20.7월 47.2 → 8월 49.9 → 9월 51.7 → 10월 51.2)

□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수요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오름세가
다소 확대될 전망



주: 1) 상품수입물량 기준
자료: CPB

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



자료: IMF(20.10월)

(미 국)

□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-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*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근 경제활동이 일부 제약

* 소매판매(9월 1.6% → 10월 0.3%)는 6개월 연속 증가

- 향후 바이든 신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
-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, 바이든 신정부 출범 과정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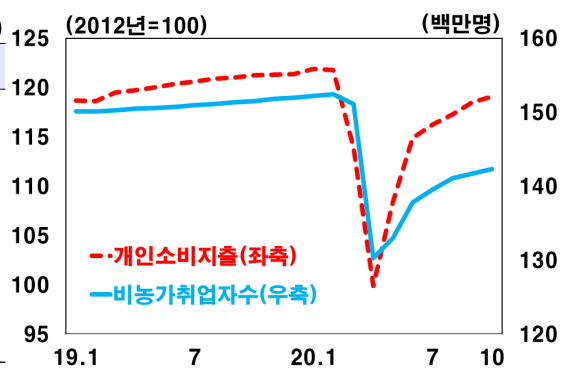
▶ 미국 성장률 전망(%)	2019	2020 ^{e)}	2021 ^{e)}
· IMF(20.10월)		-4.3	3.1
· OECD(20.9월)	2.2	-3.8	4.0

미국 주요 경제지표

	(전월대비, %)			
	20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	4.2	0.7	-0.4	1.1
서비스 소비	1.3	1.1	0.8	0.6
소매 판매	1.1	1.4	1.6	0.3
실업률(%)	10.2	8.4	7.9	6.9
ISM제조업지수 ¹⁾	54.2	56.0	55.4	59.3
ISM비제조업지수 ¹⁾	58.1	56.9	57.8	56.6

주: 1) 기준치=50
자료: 연준, 경제분석국, 인구통계국, 노동통계국, ISM

개인소비지출¹⁾ 및 취업자수



주: 1) 상품 및 서비스 소비
자료: 경제분석국, 인구통계국

(유로지역)

□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

○ 9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이 약화

▪ 서비스업PMI가 기준치 아래에서 하락을 지속(8월 50.5 → 9월 48.0 → 10월 46.9 → 11월 41.3)하고 9월 소매판매도 감소 전환(-2.0%)

▪ 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동 및 영업제한조치*를 시행

* 이동제한조치 강도(서유럽, Goldman Sachs ELI 지수, 기간중 평균)

8월 26.4 → 9월 22.5 → 10월 26.9 → 11.1~20일 42.8

○ 향후 ECB의 추가 완화정책,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경기가 다시 개선흐름을 나타낼 전망

▪ 브렉시트 협상,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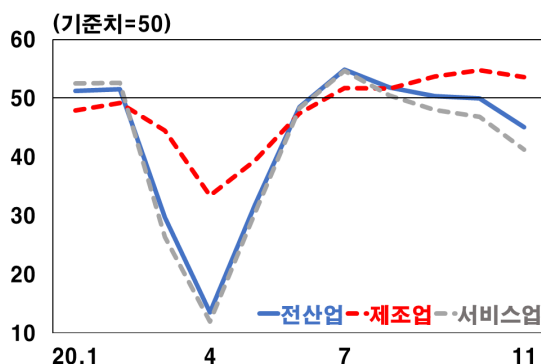
▶ 유로지역 성장률 전망(%)	2019	2020 ^{e)}	2021 ^{e)}
· IMF(20.10월)		-8.3	5.2
· OECD(20.9월)	1.3	-7.9	5.1

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

	(전월대비, %)			
	20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	5.3	0.6	-0.4	..
서비스생산	4.5	2.0
소매판매	-1.7	4.2	-2.0	..
실업률(%)	8.1	8.3	8.3	..
제조업PMI ¹⁾²⁾	51.8	51.7	53.7	54.8 [53.6]
서비스PMI ¹⁾²⁾	54.7	50.5	48.0	46.9 [41.3]

주: 1) 기준치=50 2) []내는 20.11월중
자료: EU통계청, IHS Markit

구매관리자지수(PMI)



자료: IHS Markit

(일 본)

□ 일시적으로 개선세가 주춤하겠으나 내년부터는 미약하나마 개선흐름이 이어질 전망

○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확산으로 소비는 여전히 부진

▪ 10월 수출이 전기대비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증가

▪ 서비스 소비*가 부진한 가운데 9월 소매판매가 감소

* 서비스 소비활동지수(20.1월=100) : 6월 81.6 → 9월 86.0

○ 향후 소비부진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확대*되면서 점차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

* 3차 추경이 21.1/4분기중 집행될 예정(스가 총리 일본 각료회의에서 지시, 11.10일)

▶ 일본 성장률 전망(%)	2019	2020 ^{e)}	2021 ^{e)}
· IMF(20.10월)		-5.3	2.3
· OECD(20.9월)	0.7	-5.8	1.5

일본 주요 경제지표

(전월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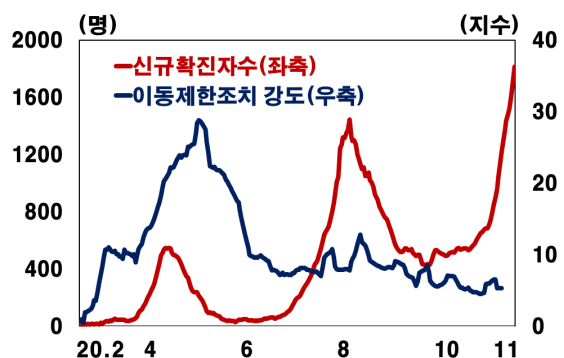
	20.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	8.7	1.0	3.9	..
소매판매	-3.4	4.6	-0.1	..
수출(통관)	6.1	4.9	3.5	2.6
민간기계수주액 ¹⁾	6.3	0.2	-4.4	..
제조업 PMI ²⁾³⁾	45.2	47.2	47.7	48.7 [48.3]
서비스업 PMI ²⁾³⁾	45.4	45.0	46.9	47.7 [46.7]

주: 1) 선박, 전력 제외 2) 기준치=50

3) [] 내는 20.11월중

자료: 경제산업성, 재무성, 내각부, IHS Markit

신규 확진자수¹⁾ 및 이동제한조치 강도¹⁾²⁾



주: 1) 7일 이동 평균

2) Effective Lockdown Index(ELI) 기준

자료: WHO, Goldman Sachs

(중 국)

□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

- 인프라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면서 회복흐름*을 지속

* 전년동기비 성장률: 2/4분기 3.2% → 3/4분기 4.9%

- 10월 소매판매와 고정투자(누계기준) 증가폭이 확대

- 향후 '쌍순환' 방식 성장전략 추진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

-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(내순환)와 함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(외순환) 하겠다고 발표

- 미·중 갈등 심화,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

▶ 중국 성장률 전망(%)	2019	2020 ^{e)}	2021 ^{e)}
· IMF(20.10월)		1.9	8.2
· OECD(20.9월)	6.1	1.8	8.0

중국 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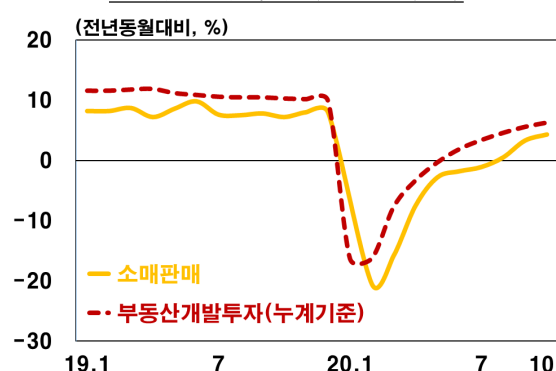
	(전년동월대비, %)			
	20.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	4.8	5.6	6.9	6.9
소매판매	-1.1	0.5	3.3	4.3
고정투자 ¹⁾	-1.6	-0.3	0.8	1.8
수출	7.2	9.5	9.9	11.4
제조업PMI ²⁾	51.1	51.0	51.5	51.4
서비스업PMI ²⁾³⁾	53.1	54.3	55.2	55.5

주: 1) 누계 기준 2) 기준치=50

3) 서비스업 상업활동지수 기준

자료: 국가통계국, 해관총서

소매 판매 및 부동산투자



자료: 국가통계국

(신흥국)

□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개선흐름이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

○ 아세안5국은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선속도는 완만할 전망

▪ 9월 들어 수출이 대중 수출(말레이시아, 필리핀, 베트남)을 중심으로 2월 이후 첫 증가 전환(+6.9%)

○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*된 가운데 봉쇄조치 완화,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

* 신규 확진자수: 9월 86,817명 → 11.1~22일중 43,577명(일평균)

▪ 9월 생산이 증가로 전환하고 10월 전산업PMI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

아세안5¹⁾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	20.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 ²⁾	-7.4	-6.0	-2.5	..
소매판매	-8.6	-5.6
수출	-2.9	-2.5	6.9	..
(대중수출)	6.6	4.6	20.8	..
제조업PMI ³⁾	47.8	48.6	49.7	49.5

인도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	20.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	-10.8	-7.4	0.2	..
자동차판매	-18.6	-1.3	7.2	10.5
수출	-10.2	-12.7	6.0	-5.1
제조업PMI ¹⁾	46.0	52.0	56.8	58.9
전산업PMI ¹⁾	37.2	46.0	54.6	58.0

주: 1)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베트남

2) 인도네시아 제외

3) 기준치=50

자료: 각국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주: 1) 기준치=50

자료: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○ 브라질은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

- 소비가 호조를 지속하고 생산이 9월중 증가 전환하였으며, 10월 제조업PMI(66.7)도 높은 수준을 지속

- 4월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 약 6,500만명을 대상으로 매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향후 경기흐름은 동 조치의 연장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

○ 러시아는 저유가 지속, 코로나19 재확산* 등으로 개선세가 주춤할 전망

* 10월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종전 최고치(5월초 11,000명대)를 지속적으로 경신(11.1~22일중 22,243명)

- 원유감산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9월 이후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비지표도 악화

브라질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	20.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	-2.7	-2.5	3.4	..
소매판매	5.5	6.2	7.3	..
수출	-3.5	-11.1	-10.0	-8.8
제조업PMI ¹⁾	58.2	64.7	64.9	66.7
서비스업PMI ¹⁾	42.5	49.5	50.4	52.3

주: 1) 기준치=50

자료: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러시아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	20.7월	8월	9월	10월
산업생산	-5.9	-4.2	-3.6	-5.9
소매판매	-1.9	-2.7	-3.0	-2.4
수출	-26.9	-32.5	-14.1	..
제조업PMI ¹⁾	48.4	51.1	48.9	46.9
전산업PMI ¹⁾	56.8	57.3	53.7	47.1

주: 1) 기준치=50

자료: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(국제유가)

□ 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)는 최근 배럴당 4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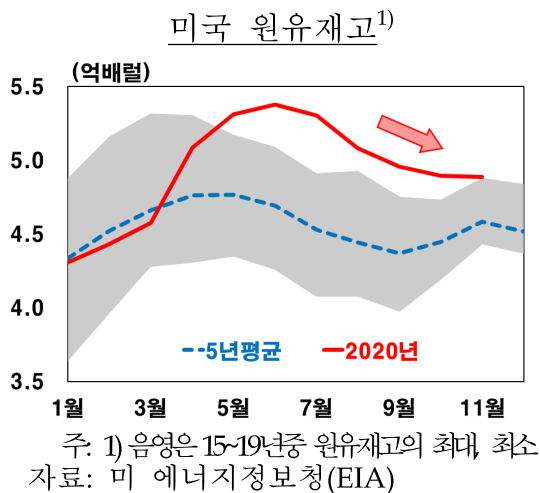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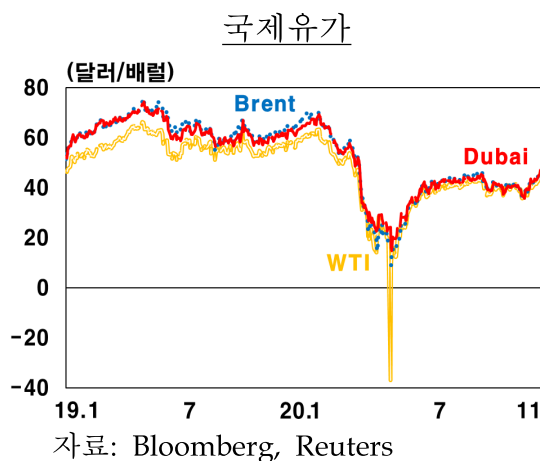
○ 코로나19 재확산, 리비아 원유생산 정상화* 등으로 한때 3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,

OPEC+의 감산 연장 가능성**,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, 미 원유재고 감소*** 등으로 오름세로 전환

* 일일 원유 생산량을 9월 15만 배럴에서 내전 휴전협정(10.23일) 이후 11월초 100만 배럴로 확대

** 최근 유럽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정되어 있던 감산규모 축소 계획(770만배럴/일 → 580만배럴/일)을 연기할 가능성(Goldman Sachs, JP Morgan)

*** 시추활동 위축, 허리케인에 따른 걸프만 생산 차질 등으로 원유생산량이 더디게 회복된 데 주로 기인



□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, OPEC+ 생산량 조절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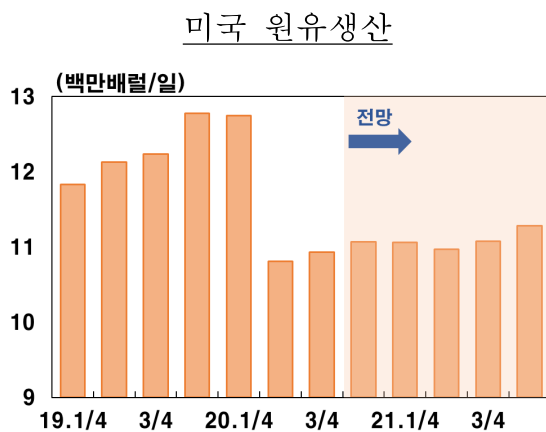
○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원유생산이 셰일산업 위축*, 바이든 신정부의 친환경 기조** 등으로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상승요인으로 작용

* 미 셰일업체들은 손익분기점(50달러 내외)을 하회하는 유가 등으로 원유 생산과 신규 유정 개발을 위한 시추활동을 대폭 축소

** 생태계 보호를 위한 영구 시추제한 지역 재지정(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중 해제),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, 환경규제 강화 등

○ 반면 이란의 수출 재개 가능성*은 하락요인으로 작용

* 이란(OPEC 3위 산유국)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(18.5월) 이후 수출 제재로 생산량이 급감하였으나 바이든 신정부와의 핵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



자료: 미 에너지정보청(EIA)

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⁾

(달러/배럴)

	2020		2021			2022
	4/4	연간	상반	하반	연간	
EIA (11.10일)	40.1	40.6	44.5	48.5	46.6	..
IHS (11.16일)	41.1	41.0	43.7	50.0	46.9	55.9
OEF (11.10일)	41.5	41.1	44.5	51.7	48.0	55.2

주: 1) 브렌트유 기준, ()내는 전망일
자료: 각 기관

2. 국내경제

(재정지출)

- 금년중 재정지출은 17.0% 늘어 지난해(12.0%)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
 - 추경을 네 차례 편성(총 66.8조원 규모)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한 데 주로 기인
 - 2021년 재정지출은 네 차례 추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.2% 늘어나고, 2022년에는 7.7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재정지출 전망¹⁾

	(조원, %)							
	2019 연간	2020 상반	2020 하반 ^{e)}	2020 연간 ^{e)}	2021 ^{e)} 상반	2021 ^{e)} 하반	2021 ^{e)} 연간	2022 ^{e)} 연간
▪ 통합재정지출 (증감률 ²⁾)	455.9 (12.0)	300.7 (11.2)	232.8 (25.6)	533.5 (17.0)	320.6 (6.6)	213.8 (-8.2)	534.4 (0.2)	575.4 (7.7)
- 경상지출	387.1	261.1	209.8	470.9	280.0	186.8	466.8	505.3
- 자본지출	49.6	21.3	12.1	33.4	21.6	14.4	36.0	37.4
- 순 용 자	19.2	18.3	11.0	29.3	19.0	12.6	31.6	32.8

주: 1) 통합재정 기준 2) 전년동기대비 기준
 3) 2021년 및 2022년은 정부예산안, 2020~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추정
 자료: 기획재정부, 자체 추정

- 금년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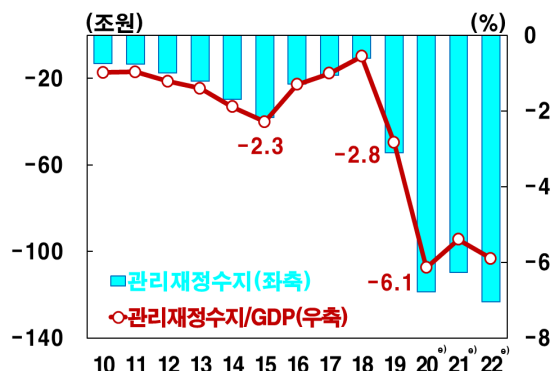
- 2021~2022년에도 큰 폭의 적자규모를 유지

주요 분야별 총지출

구 분	2020 ¹⁾	2021 ²⁾	(조원, %)	
			증감(률)	
· 보건복지고용	197.8	199.9	2.1	(1.1)
· 일반지방행정	94.0	86.5	-7.5	(-8.0)
· 산업중소기업 에너지	35.5	29.1	-6.4	(-18.0)
· R&D	24.3	27.2	2.9	(11.9)
· SOC	22.9	26.0	3.1	(13.5)
총지출	554.7	555.8	1.1	(0.2)

주: 1) 4차 추경예산 기준 2) 2021년 정부예산안 기준
 3) 2020년은 4차 추경예산, 2021년은 정부예산안, 2022년은 2020~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
 자료: 기획재정부

관리재정수지³⁾



(부동산시장)

□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*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다가 10월 중순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

* 6.17일·7.10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, 8.4일 수도권 공급대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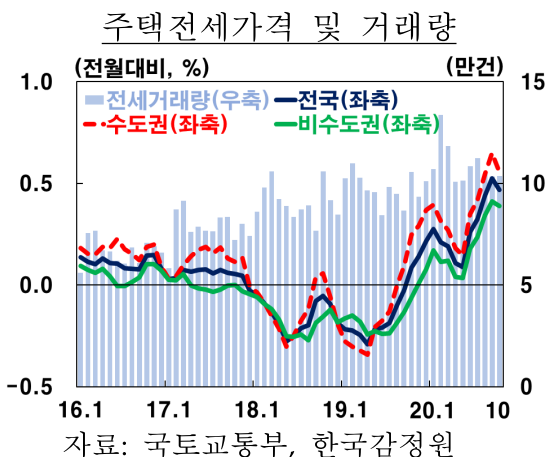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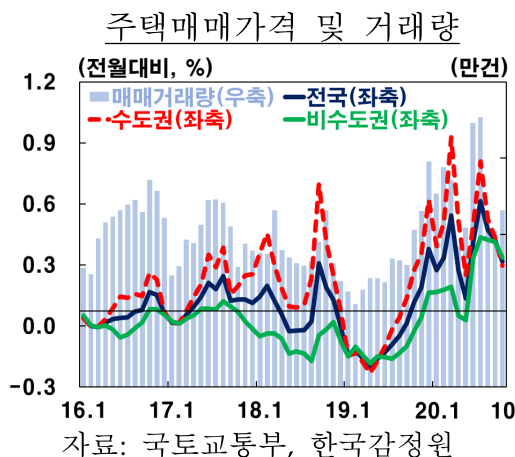
○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, 김포, 부산 등 비규제지역(11.19일 규제지역으로 지정)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주로 기인

아파트매매가격	월간동향(전월대비, %)				주간동향(전주대비, %)			
	20.7월	8월	9월	10월	10.1주	3주	11.1주	3주
▶ 전국	0.9	0.6	0.6	0.4	0.08	0.12	0.17	0.25
- 수도권	1.2	0.7	0.6	0.3	0.06	0.09	0.15	0.18
- 비수도권	0.6	0.6	0.6	0.4	0.10	0.14	0.19	0.32

자료: 한국감정원

□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*가 심화되면서 상승폭이 확대

*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10월 119.1로 15.11월(122.1) 이후 최고치를 기록(100초과시 수요 > 공급, 자료: 한국감정원)



□ 내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감소,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
오름세를 보이겠으나 부동산 세제강화의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상
승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

○ 내년 이후 입주물량은 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*

*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(만호, 자료: 국토교통부 8.4일 보도자료)
2020년[㉠] 19.3 → 2021년[㉠] 13.4 → 2022년[㉠] 15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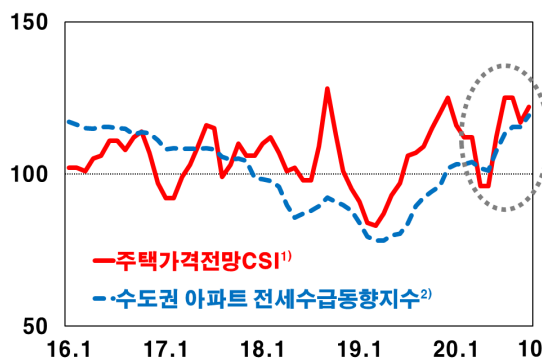
○ 보유세율 인상 및 공시가격 현실화*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
크게 늘어나고 정부 공급주택의 사전청약**이 시작될 계획

* 금년 11.3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60~70% 수준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
을 2030년까지 90%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

** 2021년 3만호, 2022년 3만호 (자료: 국토교통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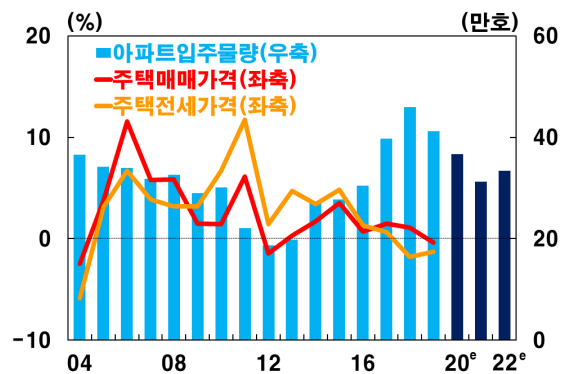
□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오름
세를 지속할 전망

주택시장 심리지표



주: 1) 100초과시 상승 > 하락
2) 100초과시 수요 > 공급
자료: 한국감정원, 한국은행

주택가격 및 입주물량



자료: 한국감정원, 부동산114, 자체
추정

<주요 전망 전제치>

(코로나19 사태의 전개양상 시나리오)

□ (세계)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
내년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

— 이동제한조치는 내년 봄부터 다시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
내년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

□ (국내)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
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

□ 2020년 및 2021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전개양상과
최근의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-4.0%, 4.8%로 전제

○ 2022년은 3.7% 성장

□ 세계교역 신장률은 각각 -10.1%, 7.0%로 전제

○ 2022년은 4.5% 증가

□ 원유도입단가(기간 평균)는 각각 배럴당 42달러, 49달러로 전제

○ 2022년은 58달러 수준

전망 전제치

	2019	2020 ^{e)}	2021 ^{e)}			2022 ^{e)}
			상반	하반	연간	
▪ 세계경제 성장률(%) ¹⁾	2.8	-4.0	5.3	4.3	4.8	3.7
미 국	2.2	-3.7	3.4	3.3	3.4	2.9
유 로	1.3	-7.1	4.4	2.8	3.5	3.0
일 본	0.7	-5.4	1.6	2.5	2.1	1.6
중 국	6.1	2.0	12.2	4.8	8.1	5.3
▪ 세계교역 신장률(%) ¹⁾	1.0	-10.1	7.2	6.7	7.0	4.5
▪ 원유도입단가(달러/배럴) ²⁾	65	42	46	53	49	58

주: 1) 전년동기대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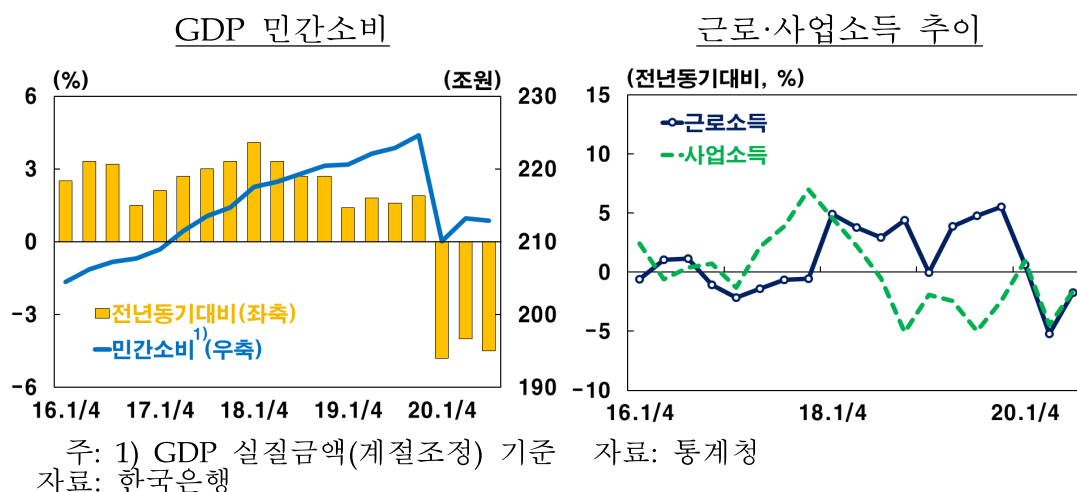
2) 기간 평균, CIF 기준, 원유도입비중(2019년 기준): 중동산 70%, 여타 30%

Ⅱ. 거시경제 전망

1. 경제성장

(1) 민간소비

- 민간소비는 금년 3/4분기중 코로나19 재확산,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개선흐름이 약화
 - 10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준내구재 및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
- 향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, 보건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
 - 가계소득은 고용상황 및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 등으로 부진이 예상
 - 3/4분기중 전체 근로·사업소득의 감소폭은 줄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큰 폭의 감소를 지속



- 가게의 경제활동이 감염에 대한 우려*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소비심리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
* 퓨리서치센터의 서베이(20.9월) 결과 우리나라의 조사대상자중 감염병 확산을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89%로 일본(88%)과 함께 주요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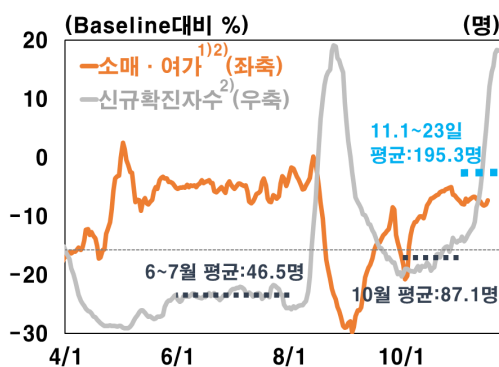
□ 부문별로는 재화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대면서비스와 국외소비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

-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 거리두기(voluntary social distancing)가 일상화되면서 대면서비스 관련 소비 회복이 제약
- 거주자 국외소비도 국가간 이동 제한, 해외여행 기피 등으로 크게 위축

(20.1월 대비 차이)	20.3월	6월	9월	10월
▶ 소비지출전망 CSI	-17	-17	-18	-10
- 여행비지출전망 CSI	-25	-28	-32	-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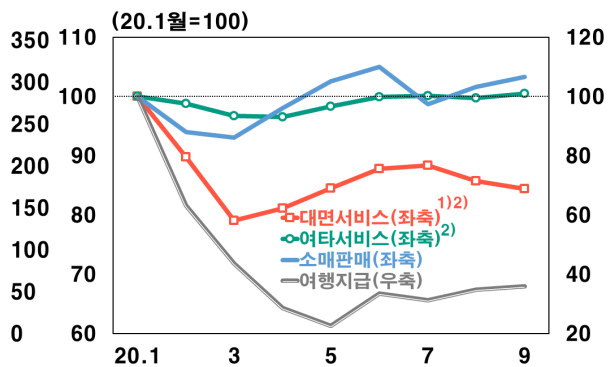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이동성지표 및 확진자 수



주: 1) 소매·여가 관련 장소의 방문 횟수와 체류시간을 코로나 이전(baseline)과 비교
2) 7일 이동평균 기준
자료: Google Mobility, 질병관리청

소비관련 지표 추이



주: 1) 숙박·음식, 예술·스포츠·여가, 교육, 운수·창고 포함
2) 서비스생산지수 기준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□ 한편 정부 지원정책,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○ 내년중 소득 및 소비 지원정책이 금년에 이어 확대 시행될 예정

▶ 주요 정부정책 규모(조원) (2020→2021)	<u>지역사랑· 온누리상품권</u> 0.3 → 1.3	<u>4대 바우처·쿠폰</u> 0.2 → 0.5	<u>고용유지 지원금</u> 0.03 → 1.2	<u>청년추가 고용장려금</u> 1.0 → 1.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주: 본예산(안) 기준

자료: 기획재정부

○ 또한 대면서비스 제약 등에 따른 저축 증가*도 향후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

* 금년 1/4~3/4분기중 저축률(가계동향조사 흑자율, 분기평균 기준)이 전년 동기대비 4.5%p 상승

⇒ 민간소비는 금년중 4.3% 감소한 후 내년에는 3.1% 증가할 전망

○ 2022년에는 2.5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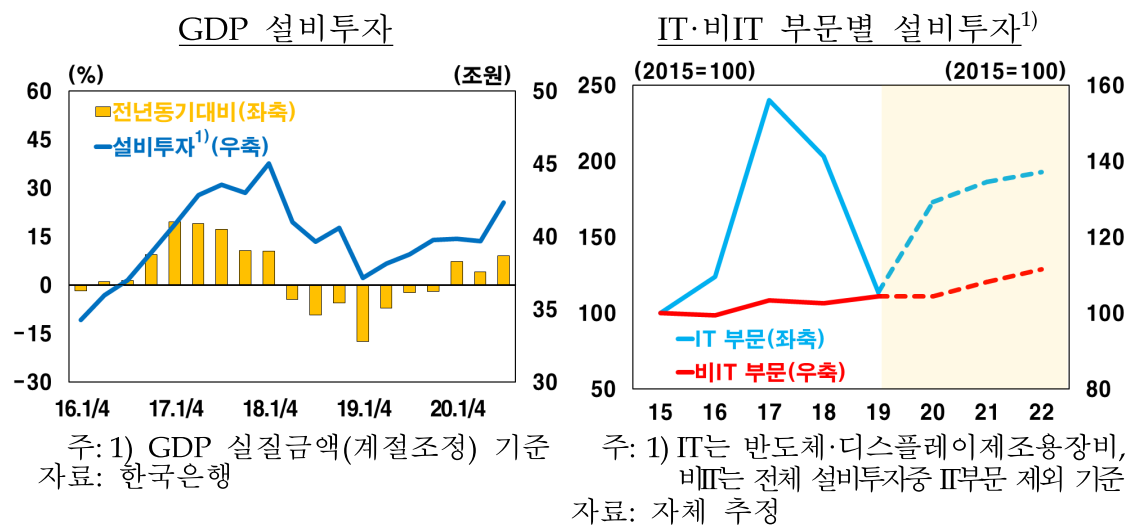
민간소비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
2019		2020		2021 ^{e)}		2022 ^{e)}	
연간	상반	하반 ^{e)}	연간 ^{e)}	상반	하반	연간	연간
1.7	-4.4	-4.1	-4.3	2.9	3.2	3.1	2.5

(2) 설비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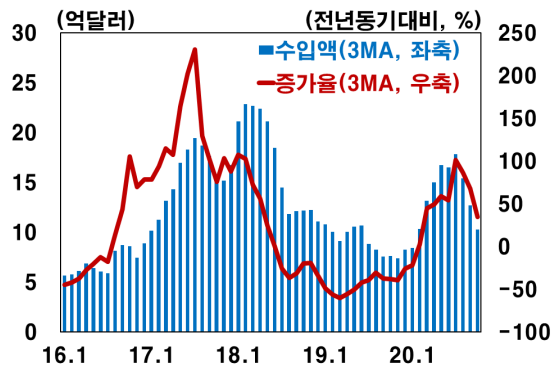
- 설비투자는 금년 3/4분기중 IT부문이 양호한 가운데 비IT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회복되는 모습
- 향후 설비투자는 IT부문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연된 비IT부문 투자도 재개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

- IT부문은 향후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견조한 투자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 - 반도체는 차세대 D램으로의 전환(DDR4 → DDR5), 파운드리 증설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
 - 디스플레이는 최근 수익성 개선*으로 투자여력이 양호해지면서 OLED 전환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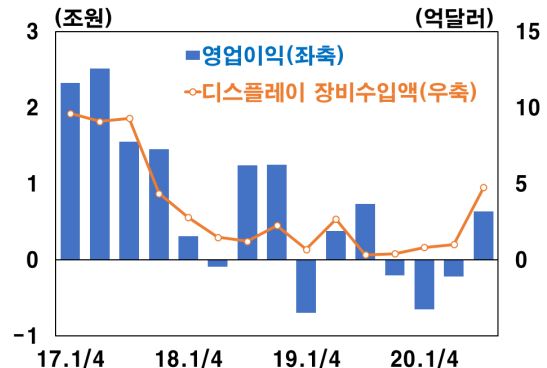
* 최근 TV판매 증가, 중국업체의 공급조절 등으로 LCD패널 가격이 상승 (55인치 기준, 6월 110달러 → 8월 128달러 → 10월 155달러)

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



자료: 관세청

국내 디스플레이업체 영업이익과 장비수입액



자료: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, 관세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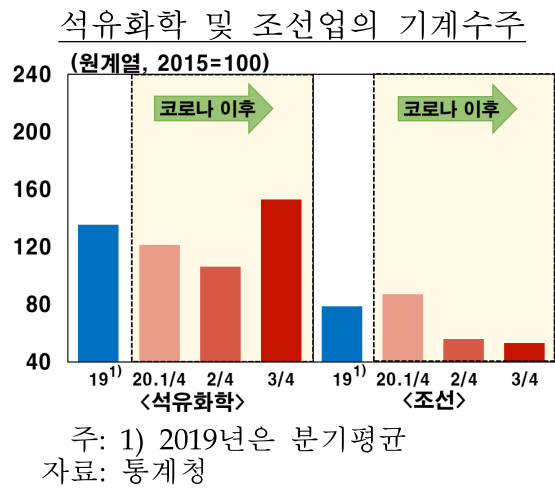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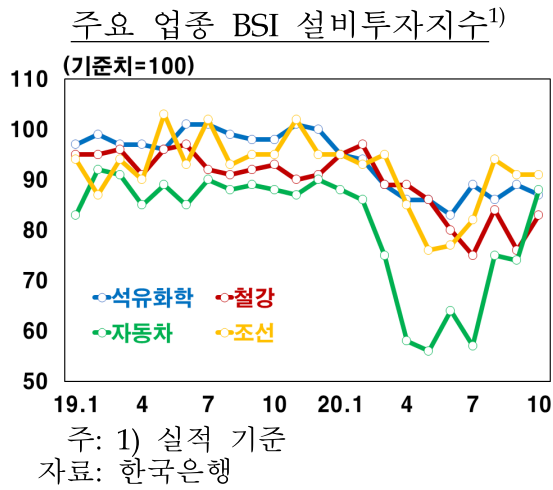
□ 비IT부문은 글로벌 경기부진이 완화되면서 신성장 부문 육성, 유지·보수 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

- 자동차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관련 투자를 지속
- 철강은 향후 건설, 자동차 등의 전방산업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, 친환경 설비증설 등에 힘입어 투자가 증가할 전망
- 석유화학은 코로나19 이후 실내활동 관련 가전·인테리어용 제품의 수요 증가 등으로 기존에 계획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
- 조선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설비를 감축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확대가 어려울 전망

▶ 조선업 생산능력 및 생산지수(전년동기대비, %)

	19.3/4	4/4	20.1/4	2/4	3/4
— 생산능력지수	-12.9	-14.4	-10.1	-11.9	-13.3
— 생 산 지 수	22.8	15.4	12.3	3.3	10.6

자료: 통계청



⇒ 설비투자는 금년중 5.7%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4.3% 늘어날
전망

○ 2022년에는 3.2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설비투자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
2019	2020		2021 ^{e)}		2022 ^{e)}	
연간	상반	하반 ^{e)}	연간 ^{e)}	상반	하반	연간
-7.5	5.6	5.7	5.7	4.9	3.6	4.3
						3.2

(3) 지식재산생산물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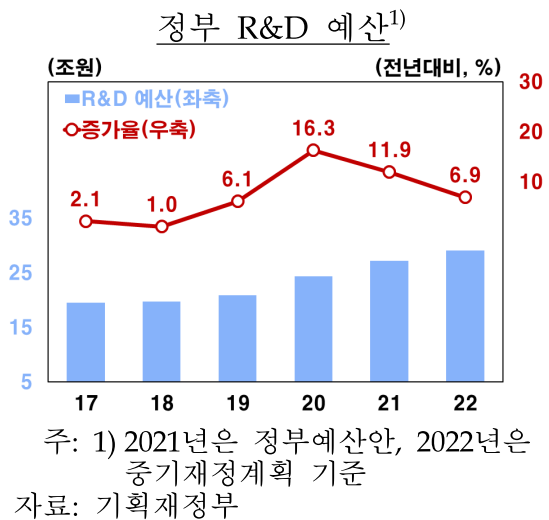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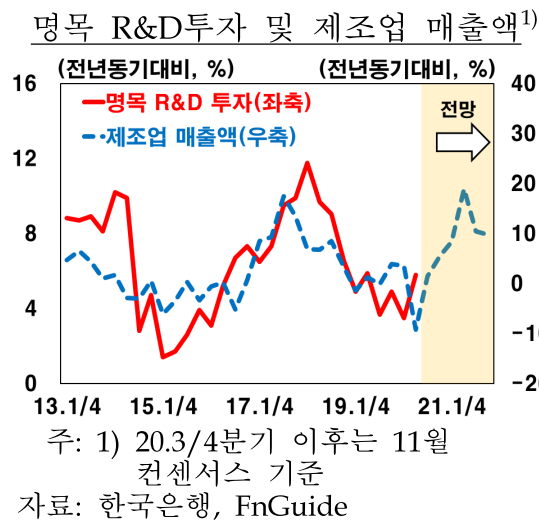
□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- R&D투자는 내년중 기업매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비대면 수요 확대, 정부 R&D 예산 증가*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

* 감염병 대응, 한국판 뉴딜, 3대 신산업(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), 소재·부품·장비 등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(21년 27.2조원, 전년대비 11.9% 증가)

- 기타지식생산물투자는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- 정부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공공정보 시스템을 데이터센터로 통합 운영할 계획



⇒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3.8%, 3.9% 증가할 전망

- 2022년에는 3.7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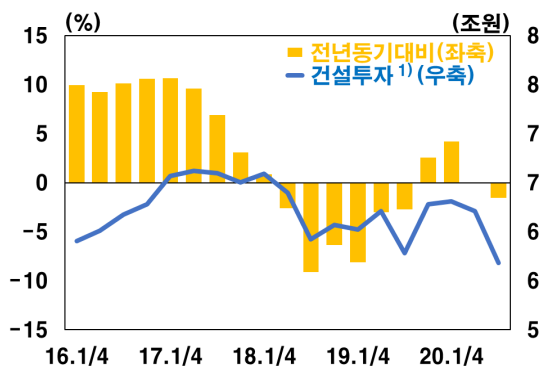
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

				(전년동기대비, %)			
2019		2020		2021 ^{e)}		2022 ^{e)}	
연간	상반	하반 ^{e)}	연간 ^{e)}	상반	하반	연간	연간
3.0	3.3	4.2	3.8	3.8	4.0	3.9	3.7

(4) 건설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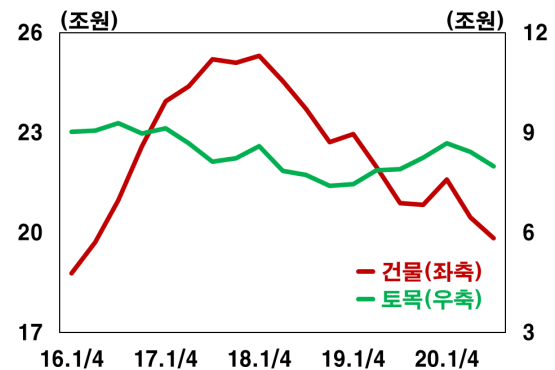
- 건설투자는 금년 3/4분기중 전기대비 큰 폭 감소
 - 건물이 장마·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토목도 SOC 예산 집행 축소 등으로 크게 감소
- 향후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건물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년중 증가로 전환될 전망

GDP 건설투자



주: 1) GDP 실질금액(계절조정)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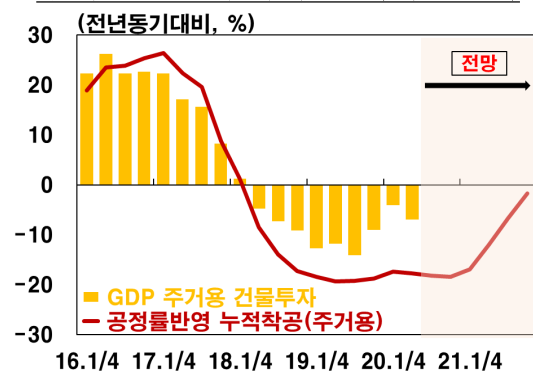
공종별 건설기성¹⁾



주: 1) 불변 건설기성액(계절조정) 기준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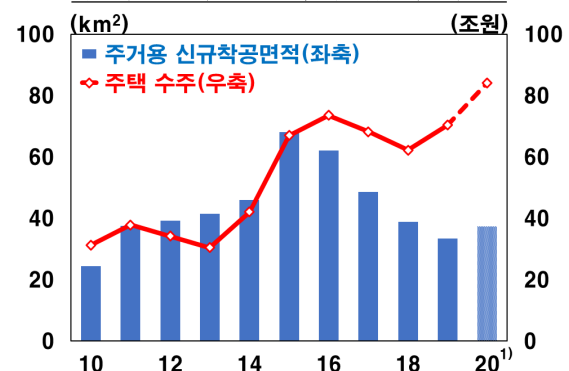
- 주거용 건물은 내년에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
 - 주택공사물량은 2018년 이후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선행지표(주택착공, 수주)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
 - 2022년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이 주거용 건물 회복에 기여

주거용 건물투자와 누적착공면적¹⁾



주: 1) 공정률을 적용한 누적합산면적
자료: 국토교통부, 자체 추정

주거용 착공면적과 주택 수주



주: 1) 2020년은 1~9월 실적을 이용하여 자체 추정
자료: 국토교통부, 통계청, 자체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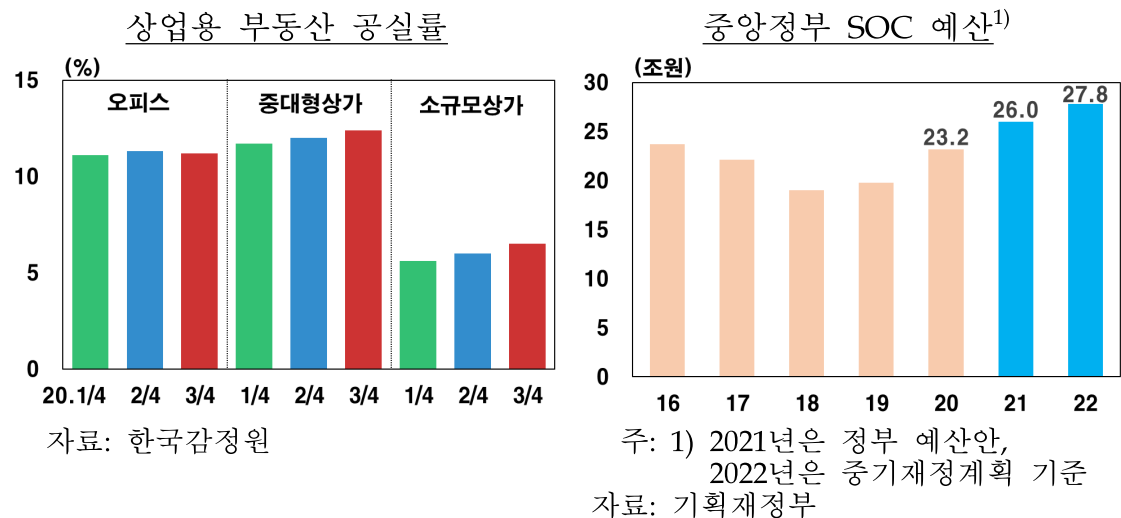
□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이 부진하겠으나 공업용 건물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○ 상업용 건물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 업황 악화에 따른 공실률 상승 등으로 부진이 예상

○ 공업용 건물은 반도체, 의약 등 일부 업종의 공장 증설이 회복 요인으로 작용

□ 토목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

○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도 증가요인으로 작용



⇒ 건설투자는 금년중 0.7% 감소하겠으나 내년중 0.5% 증가할 전망

○ 2022년에는 2.1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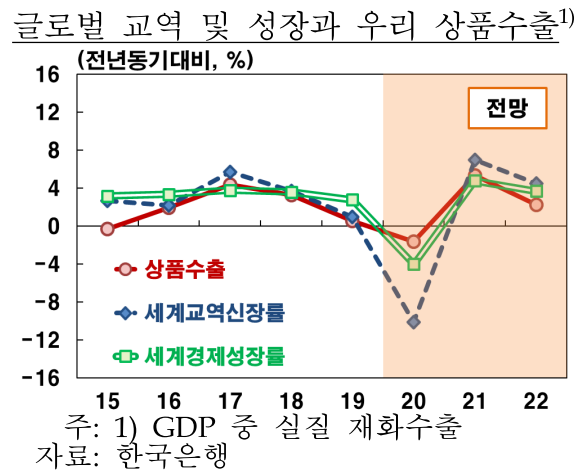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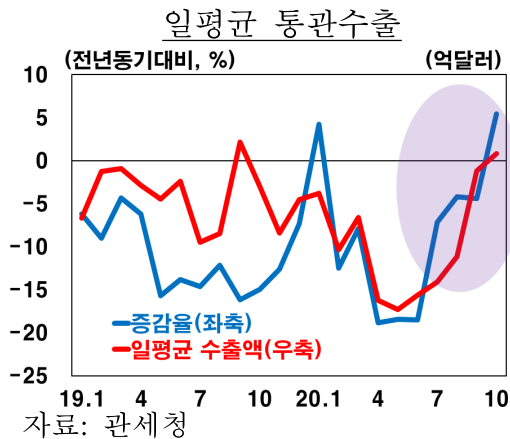
건설투자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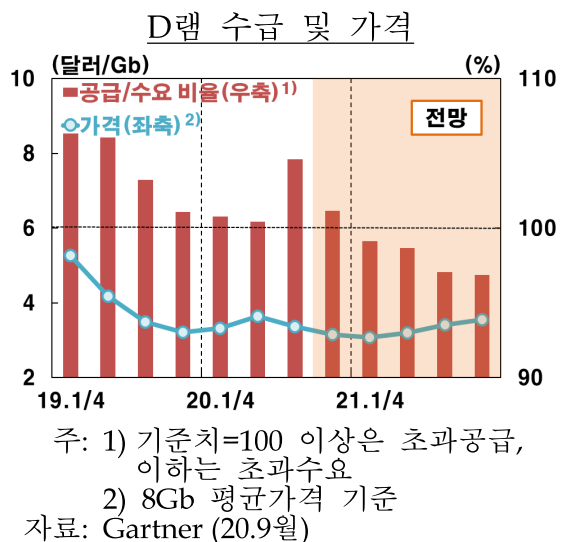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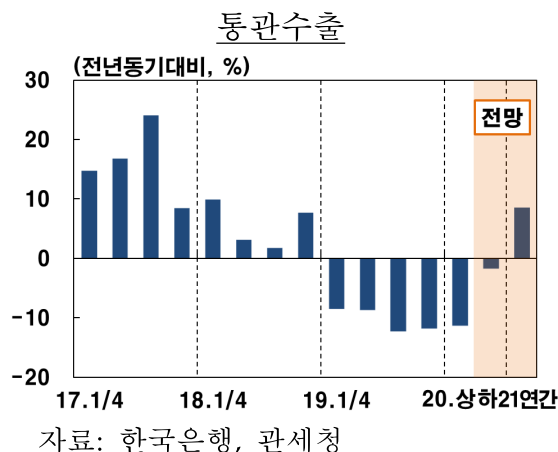
2019		2020		2021 ^{e)}		2022 ^{e)}	
연간	상반	하반 ^{e)}	연간 ^{e)}	상반	하반	연간	연간
-2.5	1.7	-2.9	-0.7	-1.8	2.6	0.5	2.1

(5) 상품수출

- 상품수출(GDP 실질 재화수출)은 금년 3/4분기중 감소폭(전년동기 대비)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4/4분기에도 회복흐름이 이어질 전망
- 내년중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



- 금액기준(통관수출)으로도 내년중 증가할 전망
 - (IT)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증가폭이 확대되고 디스플레이 패널·휴대폰도 5G 스마트폰 확산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반도체는 모바일, 서버용 수요 회복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증가폭 확대
 -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수요 증가와 5G 통신장비 수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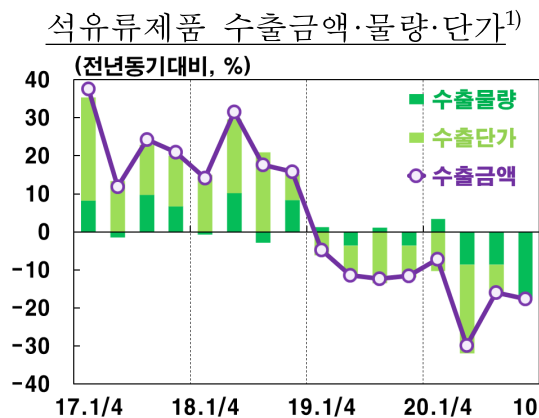


- (비IT) 선박은 2020년중 인도가 지연된 해양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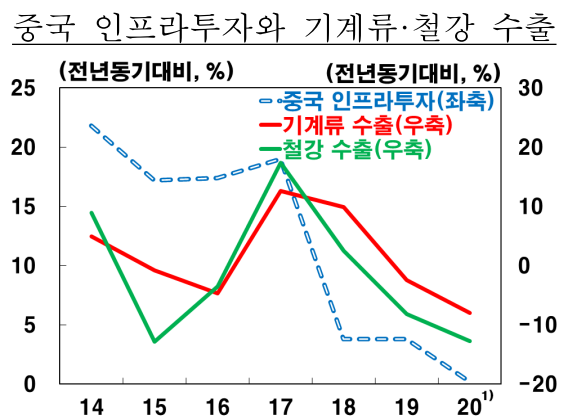
석유류(화공품·석유제품)는 수요·단가가 모두 회복되면서 증가하고 기계류·철강도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, 전방산업 수요 회복 등으로 개선

- 다만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이동제한조치 등이 강화될 경우 비IT 수출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

- (무통관수출) 5G 스마트폰, 가전 등의 견조한 수요로 휴대폰·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증가



주: 1) 석유류제품 수출금액을 수출 중량(톤)으로 나누어 산출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



주: 1) 20.9월까지 누적
자료: 관세청, CEIC

⇒ 상품수출은 금년중 1.6% 감소한 후 내년에는 5.3% 증가할 전망

- 2022년에는 2.3%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상품수출 ¹⁾ 전망						(전년동기대비, %)	
2019		2020		2021 ^{e)}		2022 ^{e)}	
연간	상반	하반 ^{e)}	연간 ^{e)}	상반	하반	연간	연간
0.5	-2.9	-0.4	-1.6	9.3	1.9	5.3	2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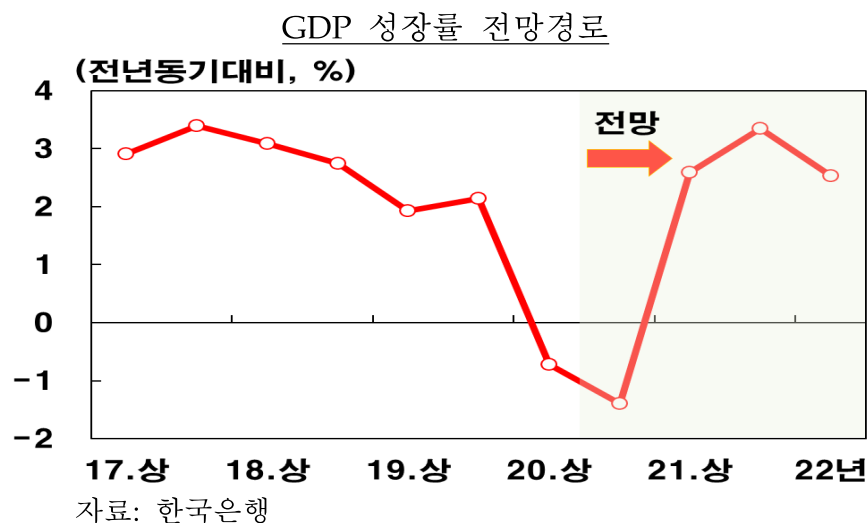
주: 1) GDP 중 실질 재화수출

(6) GDP 성장률

-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-1.1%,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.0%, 2.5% 수준을 나타낼 전망

	2017	2018	2019	2020 ^{e)}	2021 ^{e)}	2022 ^{e)}
▶ 경제성장률(전년대비, %)	3.2	2.9	2.0	-1.1	3.0	2.5

-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,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


경제성장 전망

	(전년동기대비, %)							
	2019	2020			2021 ^{e)}		2022 ^{e)}	
	연간	상반	하반 ^{e)}	연간 ^{e)}	상반	하반	연간	연간
GDP	2.0	-0.7	-1.4	-1.1	2.6	3.3	3.0	2.5
민간소비	1.7	-4.4	-4.1	-4.3	2.9	3.2	3.1	2.5
설비투자	-7.5	5.6	5.7	5.7	4.9	3.6	4.3	3.2
지식재산생산물투자	3.0	3.3	4.2	3.8	3.8	4.0	3.9	3.7
건설투자	-2.5	1.7	-2.9	-0.7	-1.8	2.6	0.5	2.1
상품수출	0.5	-2.9	-0.4	-1.6	9.3	1.9	5.3	2.3
상품수입	-0.8	-0.9	-0.3	-0.6	7.5	4.5	5.9	3.2

□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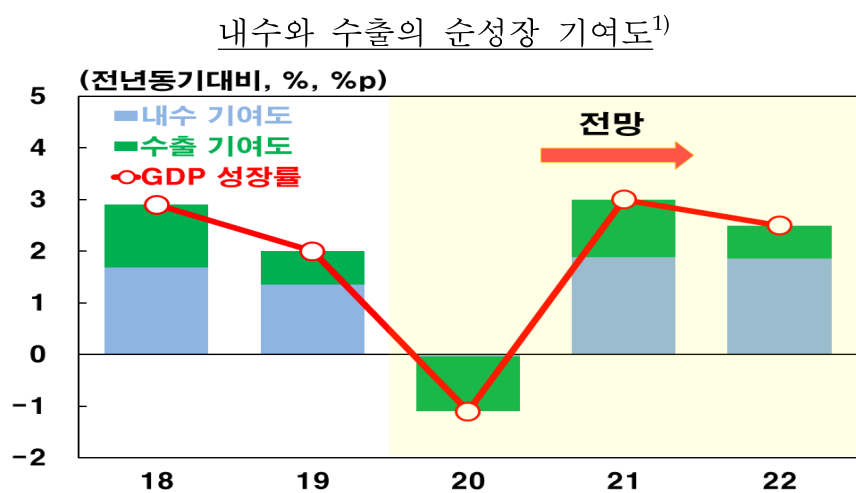
내수 기여도는 금년중 크게 축소된 후 내년중 큰 폭으로 반등하고,
수출 기여도는 금년중 큰 폭의 마이너스에서 내년중 증가로
전환될 전망

(%, %p)	2018	2019	2020 ^{e)}	2021 ^{e)}	2022 ^{e)}
▶ GDP	2.9	2.0	-1.1	3.0	2.5
내수	1.7	1.4	0.0	1.9	1.9
수출	1.2	0.6	-1.1	1.1	0.6

□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*

* <참고> ‘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’ 참조

- (상방리스크) 코로나19 백신·치료제의 조기 상용화, 국내외에서의
추가적 경기부양정책,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
- (하방리스크)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, 반도체 경기
회복 지연, 미·중 갈등 심화



주: 1) I/O표를 이용하여 세부 지출항목별로 수입유발 효과를
차감하여 산산

자료: 한국은행

<참고>

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

□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

구 분	세 계	국 내
낙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년 초반 이후 점차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2021년 상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
기 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내년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는 내년 봄부터 다시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중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
비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올 겨울중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2022년 중반 이후에나 점차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2022년 말경에나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

(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)

(전년대비, %)	세 계	국 내
낙 관	(2021년) +6.1, (2022년) +4.6	(2021년) +3.8, (2022년) +3.1
기 본	(2021년) +4.8, (2022년) +3.7	(2021년) +3.0, (2022년) +2.5
비 관	(2021년) +3.4, (2022년) +2.8	(2021년) +2.2, (2022년) +1.9

2. 고 용

(1) 동 향

□ 취업자수는 감염병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9월 이후 대면서비스업*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

* 숙박음식, 도소매, 교육, 예술·스포츠·여가, 개인서비스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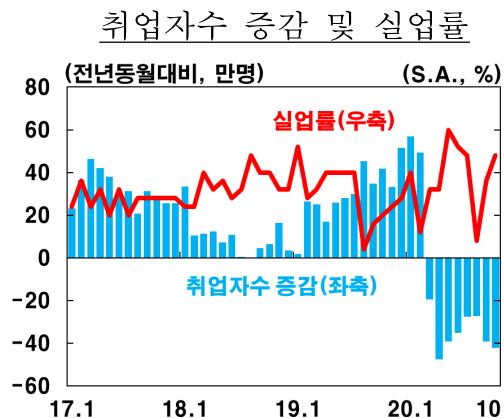
○ 제조업 고용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건설업 고용은 9월부터 증가세

○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고용 증가폭이 크게 축소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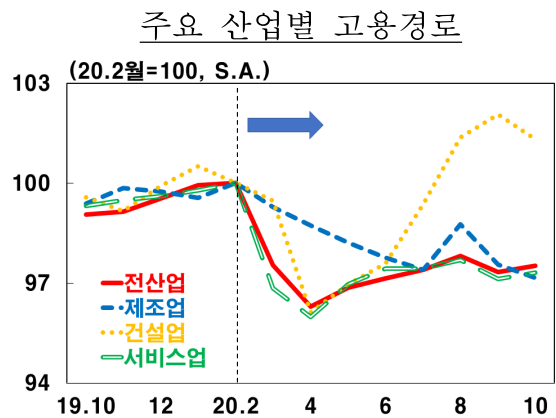
*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상용직 고용은 10월 들어 감소 전환

(전년동월대비, 만명)		20.4월(저점)	8월	9월	10월
취업자수 증감(전체)		-47.6	-27.4	-39.2	-42.1
산업별	▶ 제조업	-4.4	-5.0	-6.8	-9.8
	▶ 건설업	-5.9	-0.6	5.5	3.7
	▶ 서비스업	-44.4	-21.5	-38.2	-38.3
종사상 지위별	▶ 상용직	40.0	28.2	9.6	1.4
	▶ 임시일용직	-78.3	-39.5	-34.4	-32.0
	▶ 비임금근로자	-9.4	-16.1	-14.3	-11.5

□ 10월중 실업률(S.A.)은 4.2%로 전월(3.9%)대비 상승



자료: 통계청



자료: 통계청

(2) 전 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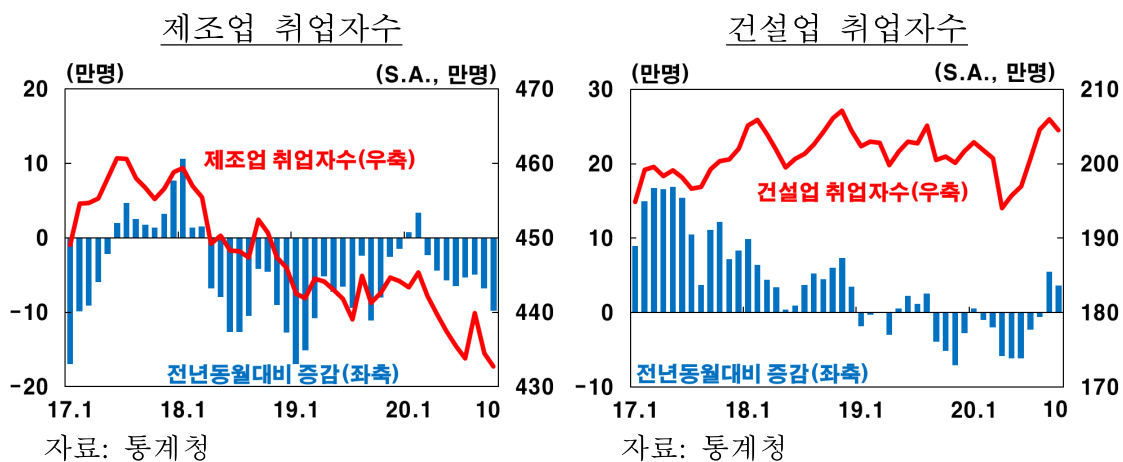
□ 취업자수는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 되겠으나, 내년에는 대면서비스 수요회복, 제조업 업황개선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

○ 제조업 고용은 대내외 수요회복에 따른 업황개선*으로 감소폭이 축소될 전망

* 글로벌 수요회복으로 IT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IT부문도 부진 완화 예상

○ 건설업 고용은 정부의 SOC 투자 확대*, 주거용 건물 공사물량 감소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예상

* SOC 예산안(본예산 기준): 2020년 23.2조원 → 2021년 26.0조원(+11.9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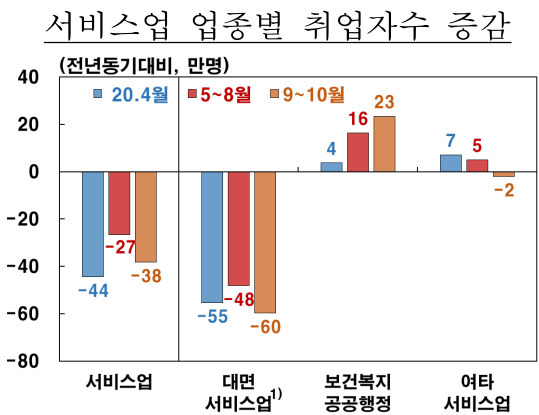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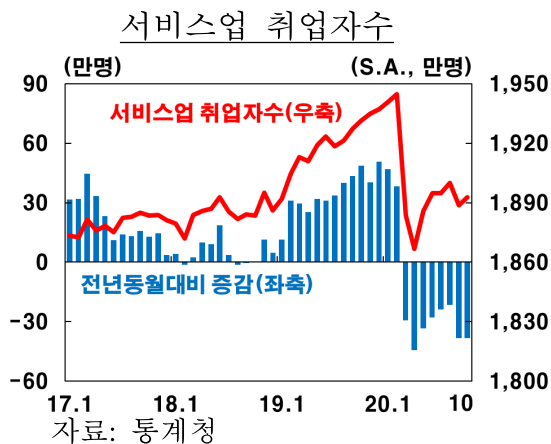
○ 서비스업 고용은 대면서비스 수요회복으로 숙박음식, 도소매,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

- 정부의 일자리 예산증액*, 고용대책(직접일자리 102.8만개)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, 공공행정 등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

* 일자리 예산(본예산 기준): 2020년 25.5조원 → 2021년 30.6조원(+20.0%)

- 다만 코로나19 전개양상, 고용유지지원 종료*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지연될 가능성

* 금년말~내년초 상당수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이 종료 예정



주: 1) 숙박음식, 도소매, 교육, 예술·스포츠·여가, 개인서비스 등

자료: 통계청

- 한편 생산연령인구(15~64세)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향후 고용회복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

(전년대비 증감, 만명)	2019년	2020년 ^{e)}	2021년 ^{e)}	2022년 ^{e)}
▶생산연령인구(15~64세, A)	-5.6	-23.1	-22.5	-24.6
▶65세 이상(B)	31.3	44.1	41.2	43.8
▶15세 이상 인구(A+B)	25.7	20.9	18.6	19.2

자료: 통계청 장래인구추계(중위)

⇒ 취업자수는 금년중 20만명 감소하고, 내년에는 13만명 증가할 전망

- 금년과 내년중 실업률은 각각 4.0% 및 3.8%, 고용률은 각각 60.1% 및 60.2%로 전망

- 2022년에는 21만명 증가할 전망

고용 전망								(만명, %)
	2019	2020		2021 ^{e)}	2022 ^{e)}			
	연간	상반	하반 ^{e)}		상반	하반	연간	
취업자수 증감 ¹⁾	30	-6	-35	-20	5	21	13	21
실업률	3.8	4.3	3.7	4.0	4.2	3.4	3.8	3.7
(S.A.)	-	4.0	4.2	-	3.9	3.7	-	
고용률 ²⁾	60.9	60.0	60.3	60.1	59.8	60.6	60.2	60.5
	[66.8]	[65.9]	[65.9]	[65.9]	[65.6]	[66.1]	[65.8]	[65.9]

주: 1) 전년동기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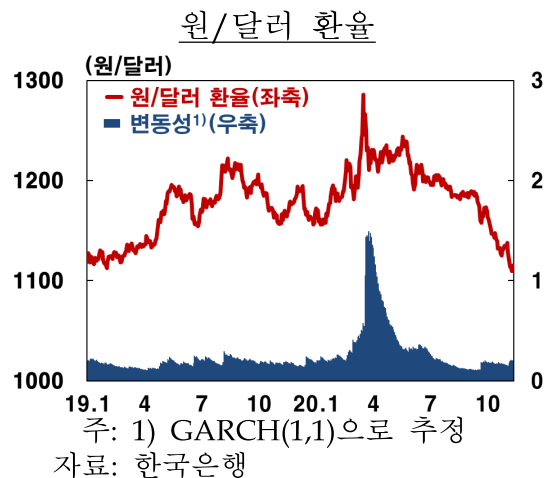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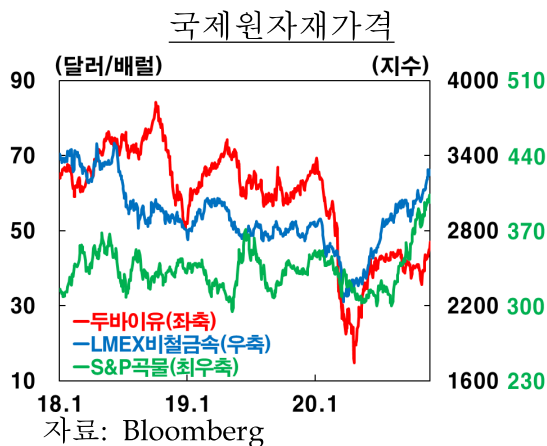
2) 15세 이상, [] 내는 15~64세(OECD기준)

3. 물 가

(1) 여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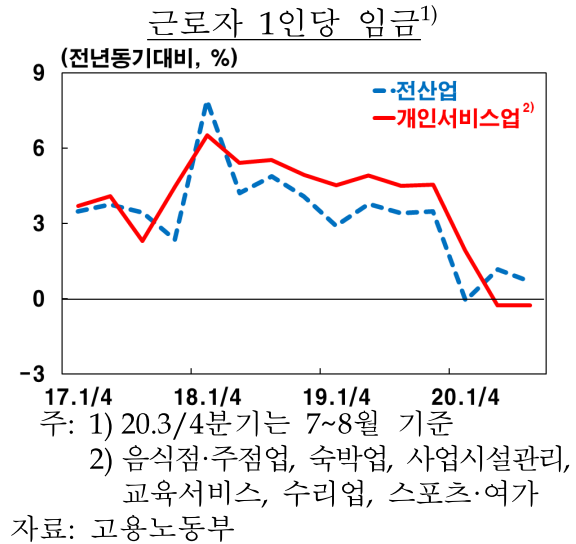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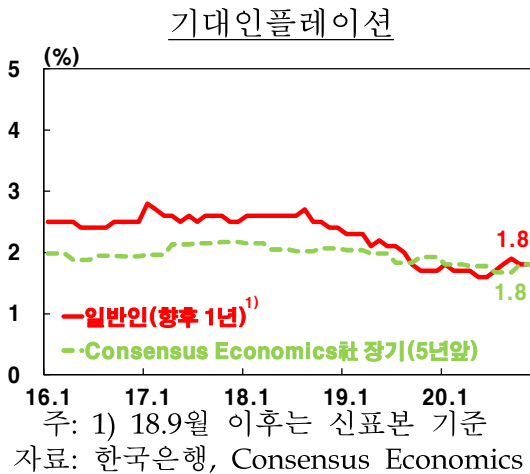
(해외요인)

- (국제원자재가격) 국제유가는 최근 4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냄
 - 국제유가는 향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, 공급여건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
- (환율) 원/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빠르게 하락하여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하회



(국내요인)

- (국내수요) GDP갭률은 마이너스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
- (기대물가)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(향후 1년) 및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(5년앞)은 1%대 후반 수준에서 등락
- (노동비용) 명목임금은 국내경기와 기업 수익성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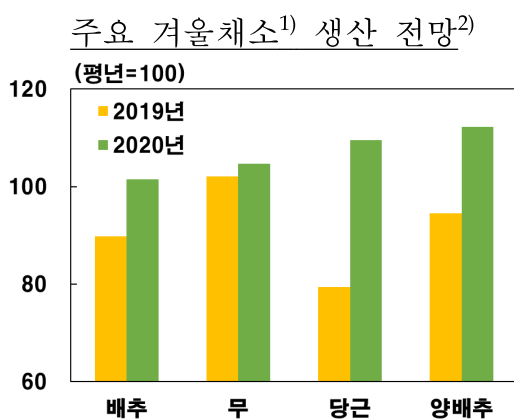
(기타요인)

□ (농축수산물)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채소류* 공급차질이 완화되면서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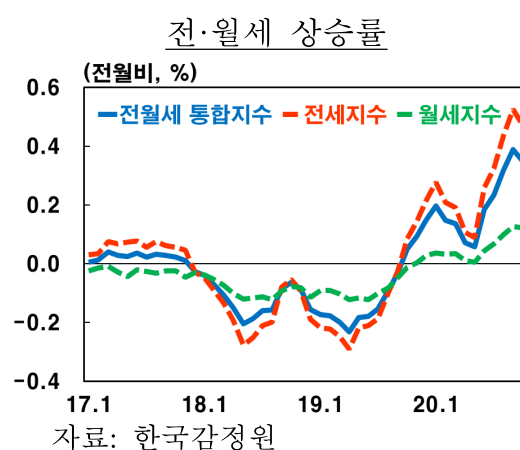
* 과실류는 저장량 감소의 영향으로 채소류에 비해 오름세 둔화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

○ 축산물가격은 최근 다소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나, 앞으로는 오름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

□ (집세) 최근 전·월세(신규계약 기준) 상승이 지속되면서 집세(CPI 기준)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



주: 1) 주출하시기는 12월~5월
2) 평년은 극단치를 제외한 2015~19년 평균 기준
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

□ (정부정책) 내년에는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축소될 전망

○ 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겠으나, 교육·통신 관련 정부정책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

▪ 금년중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·무상급식의 물가하방압력 소멸, 이동통신요금 지원(20.4/4분기)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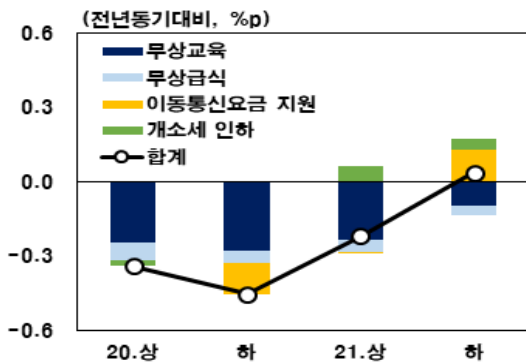
○ 금년중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(20년말 종료 예정)의 기저효과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

내년중 주요 공공요금 조정 계획

분류	내용
인상	수도 - 상하수도료 인상(충남 등, 1월)
인하	교육 - 고교납입금 무상화 확대(전북 등, 3월) - 무상급식 확대(서울·대구 등, 3월)
	의료 - 흉부 초음파 급여화(상반기 예정) - 척추 MRI 급여화(하반기 예정) - 심장 초음파 급여화(하반기 예정)

자료: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및 자체 서베이

주요 정부정책의 소비자물가 기여도



자료: 한국은행

(2) 전 망

-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내경기가 개선되고 국제유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내년중에는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축소, 최근의 전·월세 상승세 등도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중 0.5%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.0%, 1.5%로 점차 높아질 전망
 - 근원인플레이션(식료품·에너지 제외)도 금년중 0.3%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.0%, 1.3%로 높아질 전망

물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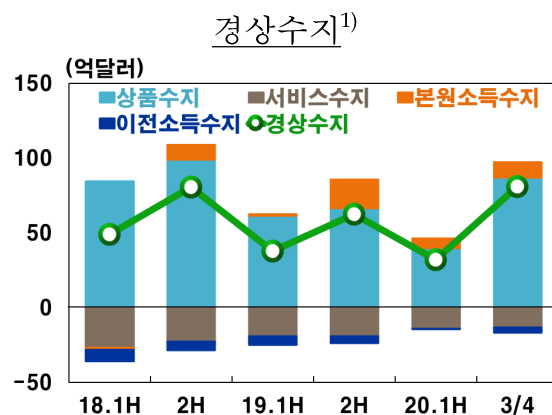
	(전년동기대비, %)							
	2019 연간	2020		2021 ^{e)} 연간 ^{e)}	2022 ^{e)}		2021 ^{e)} 상반	2022 ^{e)} 하반
		상반	하반 ^{e)}		상반	하반	연간	연간
소비자물가	0.4	0.6	0.5	0.5	0.7	1.2	1.0	1.5
식료품·에너지 제외	0.7	0.4	0.3	0.3	0.7	1.3	1.0	1.3
농산물·석유류 제외	0.9	0.6	0.7	0.7	0.8	1.2	1.0	1.3

-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상·하방 리스크가 혼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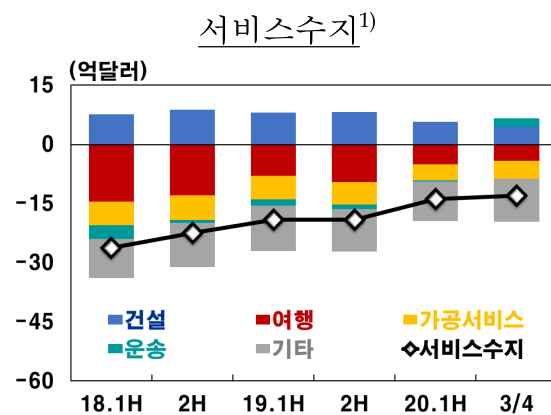
<상방 리스크>	<하방 리스크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기 개선세 강화 ▪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개선세 약화 ▪ 환율 하락세 확대

4. 경상수지

- 금년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으나, 내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
- (상품수지) 금년중 지난해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되고, 내년에도 유가 상승 등으로 흑자규모가 소폭 줄어들 전망
- (서비스수지) 금년중 여행·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,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



주: 1) 기간중 월평균
자료: 한국은행



주: 1) 기간중 월평균
자료: 한국은행

⇒ 금년과 내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각각 650억달러, 6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

- 2022년에는 580억달러로 예상

경상수지 전망¹⁾

									(억달러)
	2019		2020		2021 ^{e)}		2022 ^{e)}		
	연간	상반	하반 ^{e)}	연간 ^{e)}	상반	하반	연간	연간	
경상수지	600	192	458	650	260	340	600	580	
상품수지	769	240	500	740	365	365	730	725	
수출(통관)	5,422	2,406	2,664	5,070	2,670	2,830	5,500	5,700	
	(-10.4)	(-11.3)	(-1.7)	(-6.5)	(11.0)	(6.2)	(8.5)	(3.6)	
수입(통관)	5,033	2,297	2,343	4,640	2,450	2,630	5,080	5,300	
	(-6.0)	(-9.0)	(-6.6)	(-7.8)	(6.7)	(12.2)	(9.5)	(4.3)	
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	-169	-48	-42	-90	-105	-25	-130	-145	
서비스수지	-230	-84	-76	-160	-85	-95	-180	-210	

주: 1) ()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(%)

Ⅲ. 주요 현안점검

1. 최근 제조업 경기 현황 및 평가

(1) 최근 제조업 경기 현황

□ 국내 실질 GDP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2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나 3/4분기 들어 반등

○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제조업 생산은 빠르게 회복

□ 제조업내 세부 업종별(산업활동동향 기준)로는 3/4분기중 반도체, 전자부품 등 IT부문과 자동차, 화학제품 등 대부분의 비IT 부문 생산이 큰 폭의 증가로 전환

▪ 다만 의복(-5.3%), 가죽·가방(-3.4%) 등 일부 소비재는 3/4분기중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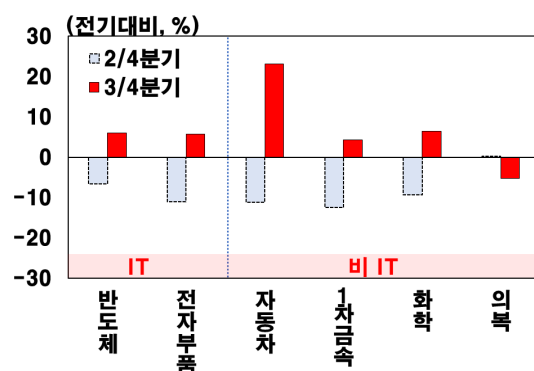
⇒ 최근 제조업 경기 회복의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점검

GDP 성장률

	(전기대비, %)			
	19.4/4	20.1/4	2/4	3/4
GDP	1.3	-1.3	-3.2	1.9
(제조업)	1.8	-1.0	-8.9	7.6
(서비스업)	1.3	-2.4	-0.9	0.7
(건설업)	3.7	0.2	-0.3	-5.5

자료: 한국은행 국민계정

제조업 생산지수



자료: 통계청 산업활동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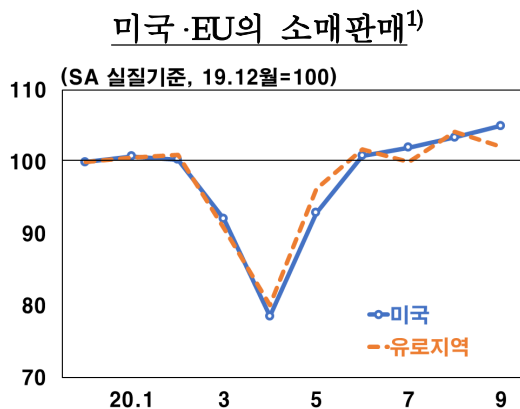
(2) 제조업 회복의 배경

(글로벌 수요 회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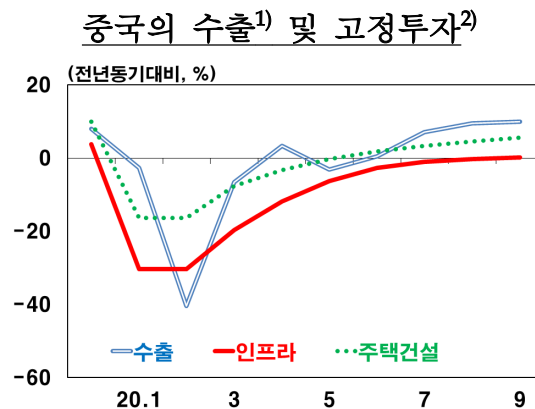
□ (현황) 미국, EU 등 주요 선진국 및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도 반등

- 미국, EU의 경우 전례없는 규모의 가계소득 지원 정책, 이연수요 (pent-up demand)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가 빠르게 회복하였으며

중국의 경우 코로나 진정에 따른 경제활동 조기 재개, 경기부양책 등으로 수출 및 고정투자가 성장을 견인



주: 1) EU는 자동차 제외
자료: Haver Analytics



주: 1) 통관수출 2) 누적투자기준
자료: CE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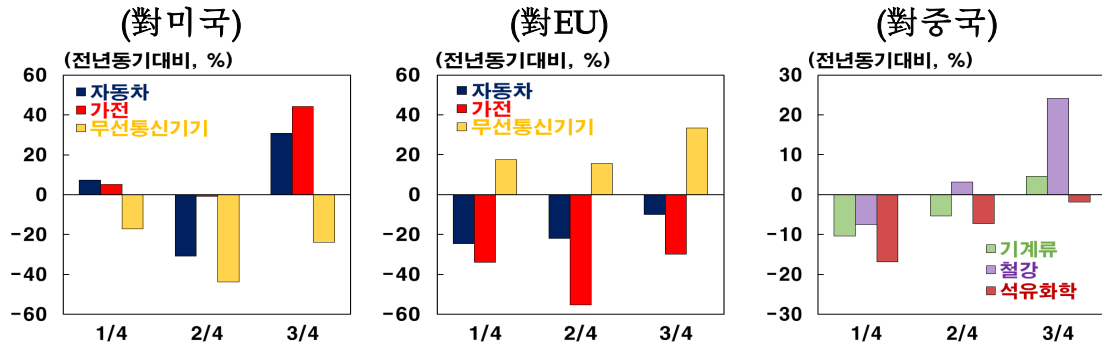
□ (국내 영향) 3/4분기중 對미국·EU 소비재 및 對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반등

- (자동차) 對미국 수출이 SUV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對EU 수출도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

- (가전) 對미국 가전제품 수출이 재택근무 등 실내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컴퓨터, 냉장고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

- (철강 및 기계) 對중국 수출의 경우 인프라 투자 관련 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기계류 수출도 증가 전환

주요 품목별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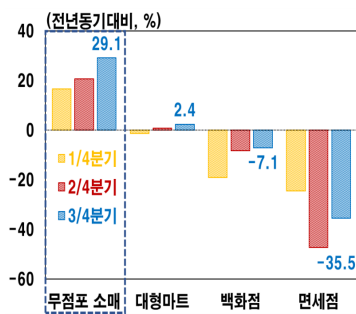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관세청

(비대면 수요 확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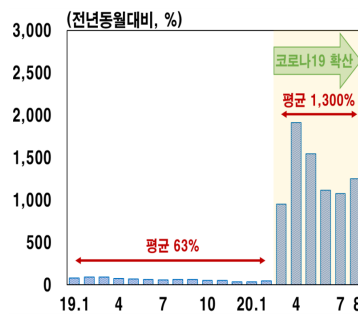
- (현황)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국들의 이동제한 조치로 대면활동은 감소하였으나 이를 대체하는 비대면 활동이 증가
 -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가운데 쇼핑, 엔터테인먼트, 의료, 교육 등의 소비활동이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대체
 -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도 비대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

업태별 소매판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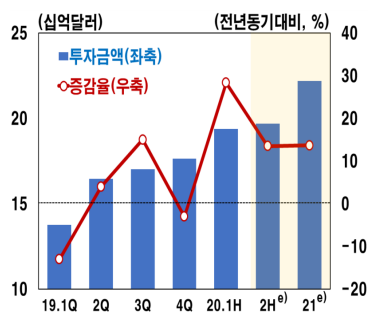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줌(zoom) 이용자수



자료: Similarweb

글로벌 클라우드업체¹⁾ 투자



주: 1) 글로벌 1~4위 업체
자료: JPMorgan(20.10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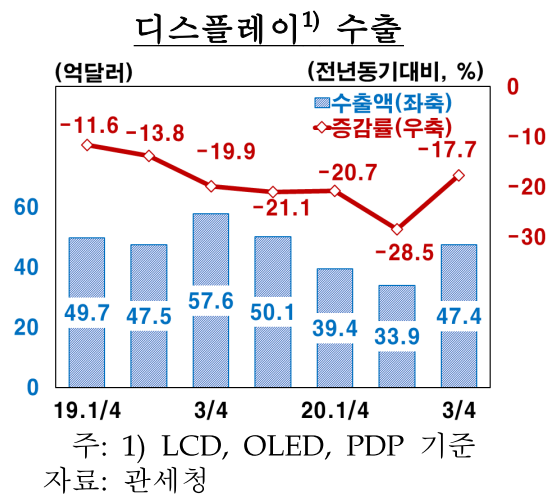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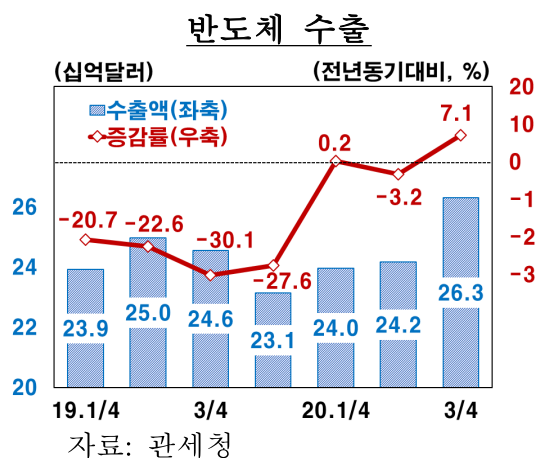
- (국내 영향)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IT기기 수요 및 기업들의 관련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IT제조업 생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
○ (반도체) 코로나 확산 초기 반도체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
예상과 달리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한 서버·PC 수요 확대로
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증가

▪ 이에 따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신성장 동력
발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투자를 지속

○ (디스플레이) 신규 스마트폰 출시, TV·PC 등의 수요 증가*로
디스플레이 수출의 감소폭(전년동기대비)이 축소

* 9월 TV용 LCD 가격이 연초(20.1월) 대비 20~60% 상승(Omdia)



(해외생산 정상화)

□ (현황) 6월 이후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우리 기업의 해외공장
가동이 정상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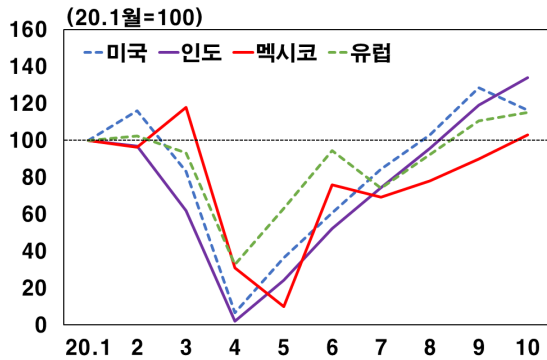
○ 4~5월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주요 해외 생산거점
(미국, 인도, 멕시코, 브라질 등)의 공장 가동이 중단

○ 이후에도 확진자 발생, 부품수급 차질 등이 일부 공장의 조업에
영향을 주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해외공장이 재가동

□ (국내 영향)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정상화는 무통관수출 및 관련
부품 수출 등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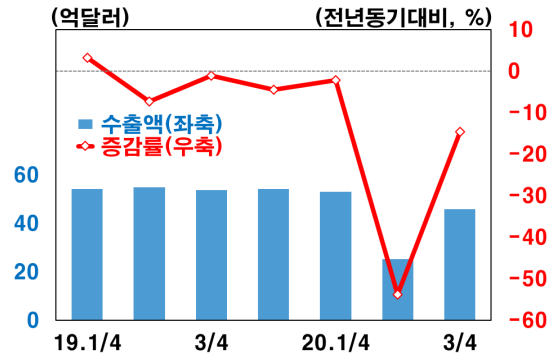
- 2/4분기중 크게 위축되었던 자동차, 스마트폰, 가전 등의 해외 생산이 3/4분기 들어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생산 공장에 대한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도 회복

국가별 현대·기아차 해외공장 출하



자료: 현대·기아차

자동차부품 수출



자료: 관세청

(국내 생산 차질 최소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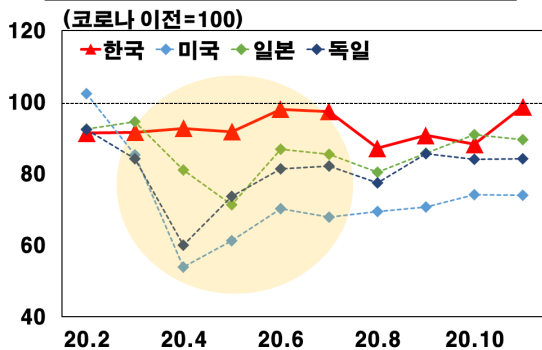
□ (현황 및 국내영향)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차질이 최소화

- 방역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충격을 완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차질을 최소화함으로써 3/4분기중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및 글로벌 이연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

- 또한 보건 등과 관련된 일부 국산제품*에 대한 수요 증가도 수출 확대에 기여

* 진단키트, 위생·청정 가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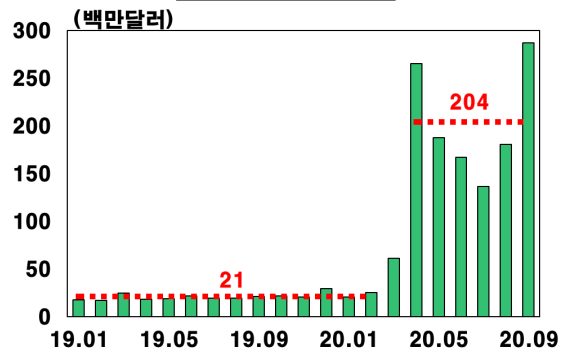
주요국의 직장밀집지역 이동성¹⁾



주: 1) 직장밀집지역 방문횟수와 체류 시간을 코로나 이전과 비교

자료: Google Mobil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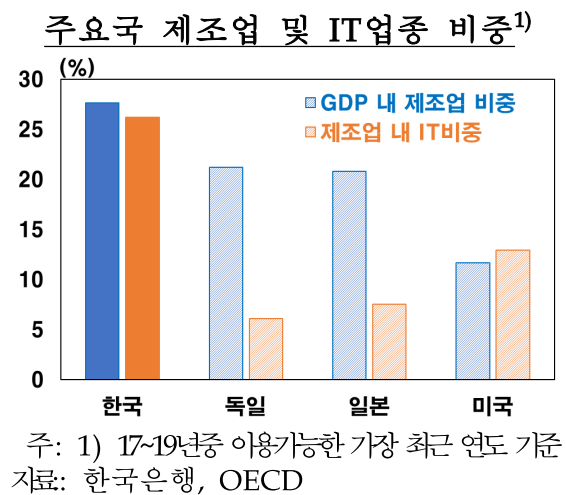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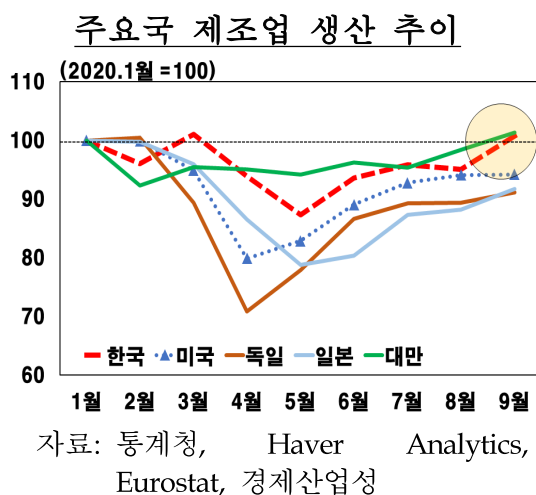
진단시약 수출



자료: 관세청

(3) 종합평가

- 국내 제조업 경기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둔화되었다가 3/4분기 들어 빠르게 회복
 -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 경기의 둔화 정도가 작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도 빠른 모습
 - 이는 IT부문의 경쟁력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가 비대면 활동 활성화, 재화 중심의 소비 증가와 같은 코로나19 이후의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
 - 또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생산차질 최소화 등을 통해 제조업 경기 회복에 기여
- 향후 국내 제조업은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나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 - IT업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비IT 업종도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



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

부 문	부 서	담 당 자
작성총괄	조사국	이지호 김대용
I. 대내외 여건 점검		
1. 세계경제 <div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vertical-align: top; margin-left: 20px;">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신흥국 국제유가 </div>	조사국	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이규환 광법준 주욱 이정기 송효진 민은지 오강현 안준영
2. 국내경제 <div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vertical-align: top; margin-left: 20px;"> 재정지출 부동산시장 </div> <주요 전망 전제치>		박종욱 이진기 조병수 주세준 김대용 이채현
II. 거시경제 전망		
1. 경제성장 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 (1) 민간소비 (2) 설비투자 (3) 지식재산생산물투자 (4) 건설투자 (5) 상품수출 (6) GDP성장률 </div>	조사국	원지환 서정원 임상은 김상훈 김주완 김상훈 김주완 임준혁 고종석 이흥후 이윤정 김대용 신동주 김형진
2. 고용		황수빈 유민정
3. 물가		이승철 박상우 이병록 노현주 남현우 강달현
4. 경상수지		이균건 박 진
III. 주요 현안점검		
1. 최근 제조업 경기 현황 및 평가	조사국	권성택 박재현